DBpia

부산 및 울산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Pusan and Ulsan Areas

저자 (Authors)
신영희, 홍영혜
Shin, Yeong Hee, Hong, Yong Hae

출처 (Sour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1), 1996.3, 33-42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간호과학회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26632

APA Style
신영희, 홍영혜 (1996). 부산 및 울산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1), 33-42.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5.215
2015/12/30 13:4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주요개념 : 에이즈 지식 · 태도, 대학생

부산 및 울산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신 영 희** · 홍 영 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에이즈(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는 1981년 미국연방방역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의 대수롭지 않는 한 보고에서 시작한뒤, 십사년이 지난 오늘날 에이즈는 전세계 163개국으로 퍼져 이제 그 수는 약 1300만-15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남북미 대륙에 각각 백만, 아프리카에 약 850만, 유럽에 100만, 동남아시아에 약 2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WHO, 1995).

에이즈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은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전 인류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의 실태를 볼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방지대책이 너무 늦은 감을 보여주고 있다(WHO, 1991). 태국의 경우 1987년도에 200명 미만이던 HIV감염자가 불과 5년이 지난 1992년도에는 45만명으로 되었다(WHO, 1992). 우리사회도 예외없이 에이즈 감염국의 일원이 되어 지난 1995년 2월에 421명이 보고되었고 6개월이 지난 9월 현재는 489명으로 증가하였다(국립보건연구원, 1995). 정부가 전국에 모니터망을 확립하고, 지정치료 병원 및 전담 진료팀을 구성하고 수입혈액제제의 에이즈 음성 반응 검사서 첨부의 의무화와 국내 혈액제제에 대한 에이즈 검사 등의 방안을 세워 에이즈 전파를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여전히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에이즈 유행초기에는 동성애자나 마약 사용자 등의 특정 집단에 주로 전파되었으나 근래에는 보통사람들의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Mann, 1991) 이에 관한 시민의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는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최근에 실시한 특수업대부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임외, 1990), 약 70%의 접대부들이 에이즈에 대하여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84%가 에이즈 검사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16%의 접대부들은 검사를 받지않고 있음이 나타나 에이즈 관리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이 16%가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수년동안 아무런 자각증세를 느끼지 못하므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교섭을 통하여 연쇄감염을 일으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동남아시아 여러나라들에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전파된 이유가 바로 이같은 단순한 사실이며,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킨것은 이들 정부의 보건정책의 태만과 대중의 무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문제를 남의 나라 문제로 방관하고 있어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

* 본 연구는 1994년도 계명대학교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 춘혜간호전문대학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으므로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에이즈에 대한 의식 계몽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대학생 집단을 조사하기로 한 이유는 이 시기에 대부분 성접촉에 노출되기 쉬우며 교육의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진 이들의 지식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전반적인 지식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자들은 추후에 다른 고위험 집단이나 일반인 등 대상을 달리하여 반복 조사할 예정이다.

2. 연구문제

연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2)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에이즈에 대한 지식 정도가 다른가?

(3)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4)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설계가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 design)인 점과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서 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대학생만 표출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이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 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Ⅱ. 연구배경

1. 에이즈의 세계적 현황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전염병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염병들은 증세가 뚜렷하여 감염자와 미감염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치료도 비교적 쉬웠으며, 결과도 단시일에 결정되었다 (Chin, 1993). 그러나 에이즈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나마 초기 자각 증상들은 흔히 겪는 감기, 설사, 빈혈, 관절염, 임파선염, 체중감소들에 불과하며, 비병원성 세균 또는 진균 감염이 반복하기 시작하여 환자나 의사들이 의문을 가지게 될 단계까지는 확진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자각과 의사의 확진이 서는 시기까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고, 더구나 에이즈 치료나 백신 개발은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이유로 에이즈 만연을 저지시킬 길이 없다. 에이즈로 인하여 유용한 노동력 상실과 가정을 지켜나갈 모성의 상실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인류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WHO, 1993 ; Merson, 1993 ; Piot & Caracl, 1988 ; Carswell, 1988).

1986년 한 예의 에이즈 환자도 없었던 동남아시아에 불과 수년 동안에 250만명 이상의 에이즈 보균자를 예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보사행정의 무능과 대중의 무지에 그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에이즈는 하나의 성병에 불과하므로 건전한 성생활과 콘돔 사용(특히 성비가 7.4 : 1이란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콘돔만큼 값싼 예방책은 없을 것이다) 및 에이즈 예방홍보교육 만으로서 100만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10억 달라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의 10배이상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을 (Chin, 1993)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통계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실패는 오로지 성병－에이즈－예방홍보교육의 실패에 불과하다고 보면 조그마한 정보의 부족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5년에 한국 주재 외국인 가운데서 첫 에이즈 환자를 발견, 환자의 본국 송환 조치후 전국에 에이즈 모니터망을 확립, 국립보건원의 HIV 검사기능의 보강, 지정치료병원 및 전담 진료팀의 구성, 국내 및 수입혈액제제의 에이즈 항체 검사 등의 방안을 세워 에이즈 전파에 대비하여 왔다(대한의협, 1987). 감염병 발생정보(국립보건원, 1995)에 의하면 1995년 9월 현재 한국 에이즈 총감염자 수는 489명이며, 20－30대가 대부분이고, 남자 대 여자의 비는 7.4 : 1 이다.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87.9%로 거의 대부분이고, 이중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은 68.9%이고, 7.8%만이 수혈 및 오염된 혈액제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감염된 것이다. 이 환자들의 치료, 보건교육, 인권보호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나, 시민의 에이즈 홍보교육은 더욱 더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2. 선행연구

어떤 예방 대책이든 그 성공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려있다. 미국 과학 학술원과 대통령의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의 18－39%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과도의 공포의식 또는 혐오의식을 나타내었다고 한다(Blendon & Donelan, 1988). 올바른 지식의 보급은 편견을 시정해 줄 수있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성취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세계의 에이즈 예방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대중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대중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에이즈 문제를 먼저 경험한 미국사회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일반대중과 보건 의료인들의 태도에 대한 많은 조사 연구들이 있다(Blendon & Donelan, 1988 ; Dear & Moore, 1994 ; McNicol et al, 1991 ; Shuwarz, 1989). Gee (1993)의 종설에 의하면 평균 80%이상의 간호사나 간호대학생들이 에이즈의 감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적어도 50내지 70%의 간호사들이 에이즈 감염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간호사들이 에이즈 환자 간호를 싫어하고 피할 수 있으면 에이즈 환자 간호는 하고싶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 이성적으로 안전하고도 인간성있는 간호를 할수 있도록 정확한 직업교육과 윤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한국에서는 간호대학생, 간호사, 고등학생, 대학생, 가임여성 그리고 접대부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나(김명남, 1995 ; 김영희, 1990 ; 동방승희, 1988 ; 이영나, 1990 ; 장순복, 1994 ; 전춘영외, 1988 ; 황인선, 1992), 그 수는 아직 적다. 김영희(1990)는 경기지역 간호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지식정도가 20점만점에 평균평점 14.4로 낮은 편이었으며, 에이즈 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과 접촉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황인선(1992)은 4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보건 교육을 통한 에이즈 지식과 태도변화를 보는 연구에서 교육이 지식은 변화시켰으나 태도는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육후 지식과 태도와의 높아진 상관관계를 통해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장순복(1994)은 서울지역 17세에서 50세의 가임여성 1152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지식정도는 22점 만점에 14.7점으로 앞서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환자격리나 감염공개에 대해서 본인과 타인의 경우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대학생, 청소년,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지식정도가 낮았고 태도도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미국, 유럽의 에이즈 역학조사에서 주요 확대전파 원인들을 찾는다면 (1) 생활습관(동성애와 마약사용)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과 (2) 보건홍보교육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시작한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적 에이즈 역학조사(pandemic)에서는 대중의 무지와 무관심 및 보건홍보 교육의 결여에 그 주 원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무런 유효한 치료제도 없는 전염병에 대한 전략은 보건홍보교육에 의한 예방이외에는 없다. 국제화 시대에 들어와 한국만이 에이즈 안전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므로 에이즈 홍보교육에 큰 관심과 투자를 아껴서는 안될 것으로 믿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술적 조사 방법을(Descriptive survey research) 택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과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종합대학교 일반대학생과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전문대학 재학생을 택하였다. 자료수집은 1995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42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이중 399부가 회수되어 95%의 회수율을 보였고 부적절한 자료는 없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총 39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항, 에이즈에 관한 지식 측정 22문항, 에이즈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에이즈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는 문항은 에이즈 정의, 진단, 전파경로, 증상 및 예방에 관한 문항 등을 포함하였으며,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개인 및 사회적 편견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에이즈에 관한 지식 측정을 위해서는 American Red Cross(1992)에서 출간한 에이즈 교육자료와 보건복지부(1995),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에이즈협회(1995)의 에이즈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문항들은 정답과 오답이 고루 배치되도록 구성되었으며, 정답에 1점, 오답에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관한 지식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에이즈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66으로 나타났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개인적 및 사회적 편견으로 구분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0점에서 '매우 동의한다'에 4점까지 5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70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SPSS/PC로 전산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이즈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각 문항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에이즈 지식과 태도에 대한 차이검정은 ANOVA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식및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통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상자들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남. 녀 일반대학생과 간호대생을 포함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2학년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연령분포는 18세에서 33세까지 다양하며 평균연령은 23.4세였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60%였다. 응답자의 1/3 이상은 현재이성과 교제중이었으며, 성경험이 있는 사람은 17.7%이었고, 이중 접객부와 성경험을 가진 사람은 4.4%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술을 마신다고 하였고(95%),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26.3%이었으며, 본드, 신나, 부탄가스, 몰핀, 대마초등의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10.5%였다.

에이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4.7%였으나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6%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TV(39.7%)나 대중잡지(22.8%)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전공/지역별	일반대학생(부산)	103	26.0
	일반대학생(울산)	147	37.1
	간호대학생	146	36.9
학 년	1 학년	54	13.6
	2 학년	262	66.0
	3 학년	33	8.3
	4 학년	48	12.1
성 별	남	156	39.2
	여	242	60.8
종 교	없 음	165	41.6
	기독교	91	22.9
	천주교	24	6.0
	불 교	108	27.2
	기 타	9	2.3
이성교제	현재 교제중이다	143	36.3
	과거에 교제하였다	130	33.0
	교제 한 적이 없다	121	30.7
성경험	한번도 없다	321	82.3
	사귀는 사람	52	13.3
	접객부	17	4.4
약물남용 경험	있다	42	10.5
	없다	357	89.5
에이즈교육 경험	교육 받은적 없다	178	45.3
	교육 받았지만 잘 모른다	193	49.1
	교육받고 충분히 안다	22	5.6
에이즈에 관한 정보 입수*	잡지	183	22.8
	전문서적	85	10.6
	TV	318	39.7
	라디오	35	4.4
	친구나 선배	57	7.1
	강연이나 특강	123	15.4

* 이 문항은 응답자가 multiple response를 하였으므로 응답 case는 실제 응답자 수보다 많음.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2.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

에이즈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정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총 22점 만점에 최저 4점, 최고 21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12.9점이었다. 이는 백점을 만점으로 보았을때 약 58.6점에 해당된다. 어떤 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항에 따라 지식정도가 다양하였으며 에이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정답을 맞춘 문항은 3문항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에이즈에 걸린다(99%)," "에이즈환자가 사용했던 주사바늘이 내 몸에 찔리면 에이즈에 걸린다(93.7%),"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질 때 감염될 수 있다(92.5%)"이다. 응답자들은 에이즈 진단이나 증상 및 일부 전파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에이즈의 정의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에이즈 검사 결과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면역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문항에 대해 옳게 응답한 사람은 35.1%에 불과하였다. 에이즈의 진단에 관해서는 3문항 모두 정답률이 매우 낮았다. "ELISA나 Western blot이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옳게 응답한 사람은 각각 25.1%와

〈표 2〉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

		맞다 n(%)	틀리다 n(%)	모르겠다 n(%)
에이즈의 정의	에이즈는 우리 몸의 면역기능이 없어지게 하는 병이다.	351(88.0)*	10(2.5)	38(9.5)
	에이즈 검사결과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이병에 면역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146(36.6)	140(35.1)*	113(28.3)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임상적으로 아무 증세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	58(14.5)	252(63.2)*	86(21.6)
에이즈의 진단	ELISA는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100(25.1)*	25(6.3)	271(67.9)
	Western blot은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49(12.3)*	27(6.8)	320(80.2)
	에이즈균에 노출된지 4주이내에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	38(9.5)	195(48.9)*	165(26.3)
에이즈의 증세	에이즈 환자는 목이나 서혜부에 임파절이 붓는다.	138(34.6)*	35(8.8)	224(56.1)
	에이즈 환자는 입안이나 혀에 하얀것이 덮히고 목안이 아프다.	113(28.3)*	39(9.8)	244(61.2)
	에이즈 환자는 멍이 잘 든다.	220(55.1)*	22(5.5)	154(38.9)
에이즈 전파 및 예방	에이즈 환자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26(6.5)	348(87.2)*	22(5.5)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콘돔을 사용하지 및 않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감염될 수 있다.	369(92.5)*	10(2.5)	17(4.3)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 바늘이 실수로 내 몸에 찔리면 에이즈에 걸린다.	374(93.7)*	15(3.8)	8(2.0)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받았을 때 에이즈에 걸린다.	395(99.0)*	2(0.5)	1(0.3)
	에이즈 환자와 함께 목욕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48(12.0)	280(70.2)*	70(17.5)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쓰던 면도날을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258(64.7)*	85(21.3)	55(13.8)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좌식 변기를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된다.	42(10.5)	261(65.4)*	92(23.3)
	미장원에서 눈섭을 문신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140(35.1)*	127(31.8)	129(32.6)
	미장원에서 귓볼을 뚫으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145(36.3)*	129(32.3)	120(30.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하던 물컵이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88(22.1)	253(63.4)*	54(13.5)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나에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나는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108(27.1)	224(56.1)*	64(16.0)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137(34.6)	178(44.6)*	81(20.8)
	헌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340(85.2)	38(9.5)*	19(4.8)

*정답 표시임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12.3%였으며,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된지 4주 이내에 감염여부를 알수 있다"라는 문항은 48.9%가 정답을 하였다. 에이즈 환자에게 나타날수 있는 증상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매우 저조한 정답률을 보여 "환자의 목이나 서혜부에 임파절이 붓는다"가 34.6%, "환자의 입이나 혀에 하얀것이 덥히고 목안이 아프다" 28.3%, "멍이 잘든다"에 55.1%의 정답율을 보였다. 에이즈 전파 및 예방에서, 90%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것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바늘에 찔렸을 때," "수혈받았을 때"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문항이었다. 감염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문신이나 컷볼을 뚫으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맞게 응답한 사람은 각각 35.1%와 36.3%이며, 면도날을 같이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64.7% 였다. 약 30%-43%는 "함께 목욕하거나," "좌식 변기를 같이 사용하거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오답한 사람이 44.6%였다. "에이즈 환자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 에이즈에 걸린다"에 정답자가 87.2%인데 반해 "물컵이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에 정답자는 63.4%였다. 그리고 수혈 항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85.2%였는데 이는 수혈과 헌혈을 혼동한 것인지, 헌혈이 정말 위험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연구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3.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지식 정도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간에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응답자를 부산지역 일반대학생, 울산지역 일반대학생 및 간호대학생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one-way analysis of variance 를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57, p=.000).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위해 Scheffe procedure를 사용하여 post hoc analysis를 해본 결과, 부산지역 일반대학생의 지식정도가 간호대학생은 물론 울산지역 일반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울산지역 일반대학생은 간호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식정도가 낮았다(p<.05). 학년, 성별, 연령 및 종교에 따른 에이즈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전공/ 지역별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 비교

	n	평균	SD
일반대학생(부산)	103	11.45	3.78
일반대학생(울산)	147	12.86	3.04
간호대학생(부산)	149	13.90	3.08

Source	df	SS	MS	F	P
Betwwen Groups	2	353.07	176.53	16.57	0.00
Within Groups	381	4058.34	10.65		

〈표 4〉에서 보는바와같이 과거에 에이즈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이 에이즈 지식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6.9, p=.000). Post hoc analysis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에이즈에 관해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집단"이 "교육을 받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나 "교육을 받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식정도가 낮았다. 또한 "교육을 받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집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지식정도가 낮았다(p<.05). 이 결과는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이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에이즈 교육경험에 따른 에이즈 지식정도 비교

	n	평균	SD
강의 안받음	178	11.75	3.31
강의를 받았지만 잘모름	193	13.49	3.14
강의를 받고 충분히 이해함	22	16.35	2.39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	2	529.08	264.54	26.09	.00
Winthin Group	377	3821.95	10.14		

4.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에서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는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는 문항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동의한다" 와 "동의안한다"로 묶어서 살펴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같이 에이즈에 대해서 대부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78.4%), 일반적인 태도는 냉담하였지만 자신과 관련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동정적이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로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에이즈 환자는 자신의 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90%), 이들을 "격리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다(64%).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는 이들을 돌보고 우정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0% 이상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80%는 "자신은 에이즈에 걸릴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함으로써 대부분은 자신이 실제로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표 5〉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

		동의한다 n(%)	동의안한다 n(%)	모르겠다 n(%)
태 도	에이즈 감염자는 자기병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361(90.5)	31(7.8)	16(4.1)
	에이즈 감염자는 격리 수용되어야 한다.	254(63.6)	134(33.6)	11(2.8)
	에이즈 감염자는 해고되어야 한다.	100(25.0)	262(65.7)	37(9.3)
	에이즈는 메스컴이 시사하는 것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61(15.3)	316(78.4)	25(6.3)
	나의 가족이 에이즈에 걸린다면 나는 그를 돌보겠다.	346(86.7)	17(4.3)	36(9.0)
	친구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친구와 우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320(80.2)	15(3.8)	64(16.0)
	나는 에이즈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319(80.0)	35(8.8)	45(11.3)

5.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에 대한 태도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세 집단이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3, p=.000). 그러나 학년이나 연령, 종교등은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est에 의하면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r=.23).

〈표 6〉 전공/ 지역별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 비교

	n	평균	SD
일반대학생 (부산)	103	13.44	3.18
일반대학생 (울산)	147	14.82	3.69
간호대학생 (부산)	149	15.15	3.79

Source	df	SS	MS	F	P
Between Group	2	190.80	95.40	7.33	.00
Within Group	396	5152.13	13.01		

V. 논 의

최근의 대중매체를 통한 에이즈에 관한 홍보계몽의 영향으로 일반대학 및 간호대학생들의 에이즈 전파와 예방에 관한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율이 높았다(85-90%). 그러나 비교적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에이즈의 정의, 진단, 및 증상에 관한 문항들은 대체로 정답률이 매우 낮았다. 또한 에이즈 전파 및 예방에 대해 어떤 내용은 상당히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 같은 맥락이지만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들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주사바늘에 찔리면 에이즈에 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신하거나 귓볼을 뚫었을 때의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35%정도에 불과하였고, 면도날을 같이 사용하였을 때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64.7% 뿐이었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가 김영희(1990)과 이영나(1990)의 결과와도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수가 아직 많은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족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때 그 교육내용이 실생활 중심이 아니고 의료환경 중심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아울러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에이즈 교육시 강조되고 반복되었던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잘못 알거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영나는 1990년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당시의 지식 조사에서는 에이즈 환자와 수영이나 목욕을 같이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75%이상이었는데 그 동안 홍보의 효과 탓인지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잘못된 인식은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응답자의 30-35%는 에이즈 환자와 같이 목욕하거나, 변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물컵을 사용할 때 에이즈에 걸릴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식의 결여인지 또는 에이즈 공포증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수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99%가 정답을 하였는데 헌혈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5.2%였다. 수혈과 헌혈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 혹은 학년에 따라 에이즈 지식 정도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이영나(199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응답자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알고싶지만 교육받을 기회나 이에 관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응답자들이 주로 TV나 대중 잡지를 통해서 에이즈에 관해서 배웠다고 하였는데, 대중매체가 어떤 경고는 줄 수 있지만, 매체가 가진 시간적 제한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듯하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간호대학생이나 일반대학생 중에 에이즈에 대해서 강의를 받은 사람이 215명으로 전체 약 54.7%가 되지만, 실제로 이 병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5.6%에 불과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에이즈에 대한 교육은 좀더 실질적인 생활교육이어야 하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대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영나(1990)와 동방승희(198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에이즈에 걸렸다면 호의적이고 동정적인 태도였으나, 가족이나 친구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비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Blendon & Donelan이 1988년에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약 18-39%를 보였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들은 좀더 심한 경향을 보였다. 아이로니칼하게도 대상자의 과반수가 에이즈 감염자를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상영된 바있는 에이즈 환자의 인권투쟁을 다룬 영상매체가 대상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대상자들은 에이즈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과거 에이즈 교육경험여부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 예컨대 지역, 성별, 종교, 성경험 여부등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부산과 울산지역 일반대학생 및 간호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정도는 전파와 예방에 관해 일부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맥락이면서도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었다. 에이즈의 진단, 증상등에 관한 지식은 모두 낮았다.

전반적으로 에이즈에 대해 지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부산지역 일반대학생이 가장 낮았으며 간호대학생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 학년별지식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은 에이즈에 관한 정보를 주로 TV나 대중잡지를 통해서 얻었고, 약 95%의 학생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잘모르겠다고 하였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에이즈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비난적이었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에이즈 환자라고 하면 동정적이었다.

치료법도 백신도 없는 현 상황에서 에이즈 만연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홍보교육을 통한 예방이다. 청소년들을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에이즈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국립보건원(1995). 감염발생정보. 6(11), 104.

김명남(1995). 일부지역 접대부의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최신의학. 38(10), 112-120.

김영희(1990). AIDS 환자에 대한 간호학생의 지식과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태도조사 연구 : 경기지역 일개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2, 124-135.

대한에이즈협회(1995. 8). 에이즈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대한의학협회(1987). AIDS : 본체, 현황 및 대책. 서울 : 예문각.

동방승희(1988).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보건복지부(1995. 6).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형문화주식회사.

한국소비자연맹. 에이즈란 무엇인가(AIDS).

이영나(1990). 부산시내 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임종권, 장동현, 최성옥, 김성권(1990). 성병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립보건사회연구원.

장순복(1994). 가임여성의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 대한간호, 33(5), 46-62.

전춘영외(1988). AIDS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와 지식 조사 연구. 대한간호. 27(4), 75-87.

황인선(1992). 에이즈 보건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에이즈 지식과 태도 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American Red Cross(March, 1992). American Red Cross HIV/AIDS Instructor's Manual. American Red Cross.

Blendon R & Donelan K(1988).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AIDS : The public's perspective. New England J Med, 319, 1022-1026.

Carswell JW(1988). Impact of AIDS in the developing world. Br Med Bull, 44(1) 183-202.

Centers for Disease Control(1981). Pneumocystis pneumonia-Los Angeles. MMWR, 30, 250-252.

Chin J(1991). Present and future dimensions of the HIV/AIDS pandemic(abstract). In : Ⅶ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DS(Florence, Italy).

Chin J(1993). Public-health strategies and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HIV-1 and AIDS : Then and now. J. NIH Res. 5, 66-68.

Dear MR & Moore, JB(1994). Children's knowledge and affective response to AID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22(2), 65-72.

Gee G(1993). Nurse Attitudes and AIDS. In : Dalgleish AG and Weiss RA(eds.). AIDS and the new viruses, Academic Press, London.

Mann, J. M.(1992). AIDS-the second decade :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165, 245-250.

McNicole, LB, Hadersbeck, RE, Dickens, DR, & Brown, JE(1991). AIDS and pregnancy :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self-identification of risk. JOGNN, 20(1), 65-72.

Merson MH(1993). Slowing the spread of HIV : Agenda for the 1990s. Science, 260, 1266-1268.

Piot P & Carael M(1988). Epidemiological and sociological aspects of HIV-inf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r Med Bull, 44(1), 68-88.

Schwarz, MR(1989). Physicians' attitudes toward AIDS. In. DE Rogers & E. Ginzberg(Ed).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Fifth Conference on Helath Policy : Public and Professional attitudes toward AIDS patients. Westview Press, Boulder.

World Health Organization Update(1991). AIDS cases reported. Geneva : Global Program on AIDS/WHO.

World Health Organization(1993). The HIV/AIDS pandemic : 1993 Overview.(Document WHO/GPA/CNP/EVA/93. 1). global program on AID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1995). Weekly Epidemiological Record, 70, 5-12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

— Abstract —

Key concepts : AIDS, knowledge, attitudes, college student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Pusan and Ulsan Areas

Shin, Yeong Hee · Hong, Yong Hae***

Given the global impact of the AIDS pandemic, it is necessary to take every measure to prevent an epidemic of this disease in Korea. The only available strategy is prevention. Considering college students as a potential risk group, this study examined their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this study, 399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in Pusan and Uoolsan were examined for their attitudes to, and knowledge of AIDS. Findings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the students(90%) had basic knowledge on the transmission and the prevention of the disease. However, most of them, including nursing students, lacked knowledge as to the etiological agent, major symptoms and available diagnostic techniques. To the questions designed to examine social attitude towards AIDS patients, the students showed a tendency to view AIDS patients as responsible for their own illness. Interestingly, they showed sympathy to their imaginary friends and relatives suffering from AIDS. The study findings suggest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IDS educational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 College of Nursing, Keimyng University
** Choon Hae Junior College of Nursing

계명대학교 | IP: 114.71.5.215 | Accessed 2015/12/30 13:42(KST)